

양계인의 인내 언제까지 시험할 것인가!

1. 육계산업 결산

2007 정해년이 밝아오면서 모든 양계인은 꿈과 희망찬 정해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한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정해년은 웃으며 왔다 울고가는 한해가 되고 말았다. 남들은 고운 단풍에 사로잡혀 온산을 누비며 관광에 여념이 없을 때 우리

양계인은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더욱 스산한 가을을 맞이하며 정해년 마지막 달력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

연초에는 그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의 대가로 조금이라도 양계인의 주름이 퍼질듯 하였으나 H사와 S사의 종계 공급계약으로 M사는 종계를 직수입하여 G.P.S를 조기 수입하여 종계 입추 열기에 우리나라 전체의 종계산업을 끝없는 경쟁의 나락으로 빠지면서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닭값의 폭락이 원인이 되었다.

병아리값 100원짜리가 몇 개월을 지났으나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종계 감축을 절실히 요구되나 계열사의 무한경쟁, 과잉경



박 태 원
충남육계지부연합회장

쟁으로 종계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우리 양계인의 인내와 손해를 얼마나 요구할지도 모르면서 그저 서로의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지 이는 누구를 위해 양계인이 존재하는지 전혀 알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2. 당면과제

1) 육계 의무자조금 조속히 실시

계열사와 생산농가의 원활한 협조로 조속히 시행토록 협력하여야 한다. 대의원 총회가 4차례나 소집되었으나 의족수 부족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2년이라는 세월만 흘러보내 안타깝기만 했다. 하지만 지난 12일부터 서면결의를 실시한 결과 최종 관리위원 및 감사가 확정되었고 이제 양계산업도 밝은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양돈이나 한우, 낙농은 의무자조금이 이미 정착되어 대대적으로 소비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자조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우리 육계산업도 의무자조금의 중요성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봐야만 하며 개인의 이익만 아닌 전체의 이익을 키워나간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무자조금 시행을 위한 노력으로 하루 빨리 육계의무자조금이 실행시켜야만 한다.



2) FTA 대책수립

한·미 FTA 시행되면 지금보다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제 국내에서만 의 경쟁이 아닌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농가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구 노력과 정부에 필요한 정책들 요구하고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농장의 생산기반의 시설개선을 위한 중장비 저리 융자 지원하여 전업농 이상 규모로 육성 발전하여야 하며 열악한 생산시설은 폐업보상으로 전업을 유도 등의 대책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3) 친환경 축산 육성

소비자가 원하는 닭고기 생산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사육수수의 적정수 유지와 소비자를 위한 농가의 책임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생산하여야 하며 브랜드 난립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혼동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

생산으로 힘써야 한다.

이제 육계농가들도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얼마전 닭고기 항생제 검출이라는 보도는 또 한번 소비자들의 양계산물 소비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양계산물 생산을 위해 바로 서야하며 그 대세가 친환경 축산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4) G.P.S 농가의 P.S 수급조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G.P.S의 수수조절과 계획된 P.S공급으로 과잉 생산을 막아야 한다.

이미 예전부터 적정예상물량보다 많은 원종계가 국내에 들어와 공급과잉이 예견되었으며, 예견한 바와 같이 올해 닭고기 산업을 불황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업계가 살아남기 위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경쟁구도로 과도한 물량 경쟁을 하기보다 계획적인 수수조절 통한 원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곧 다가올 내년 그리고 앞으로의 양계산업을 위해서라도 수수조절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5) 환우계 및 중계 티푸스백신 접종근절

한동안 병아리 품질로 인해 논쟁이 크게 일어난 바 있다. 지금도 필드에서는 병아리의 품질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한편 중계에는 티푸스 백신접종은 불법임에도 일부에서 불안심리로 인해 암암리에 이루어지

고 있다고 하여 육계농가들이 불신을 키우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한다.

건강한 병아리를 입추는 육계농가에게 사육성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한 병아리 생산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건강한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중계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생산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철저한 농장관리는 말할 것도 없이 경제사육주령을 준수하고 환우는 자제하여 질병을 예방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병아리 생산이 이루어져 육계농장과의 신뢰를 형성해 가야만 한다. 또한 이에 육계농장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여 전체 산업이 발전시키는 상생의 길을 꾀해야 할 것이다. **양계**

♣ 완벽하게 소독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

계사 청소대행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업

국내 최대 기기 보유

완벽한 소독

남두축산그린

휴대폰 : 011-573-8327

011-545-0643

팩 스 : 053-325-1556